

전기차/배터리산업

전기차/배터리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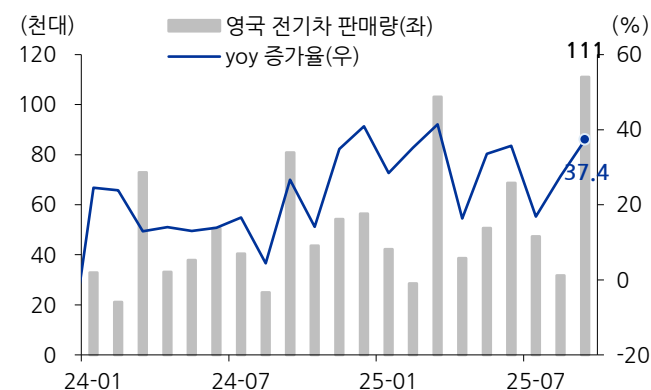
9 월 유럽 전기차 판매는 39.2 만 대로 전년비 33% 성장한 것으로 추정. 세금 감면, 보조금 등이 재 도입되면서 판매 호조세 지속될 것. 중국업체들의 EU 내 생산시설 확보에도 일정 기준 도입할 예정 이라서 K 배터리에게 긍정적

유럽, 판매 호조 속 중국 견제 강도 높여

ESG/그린산업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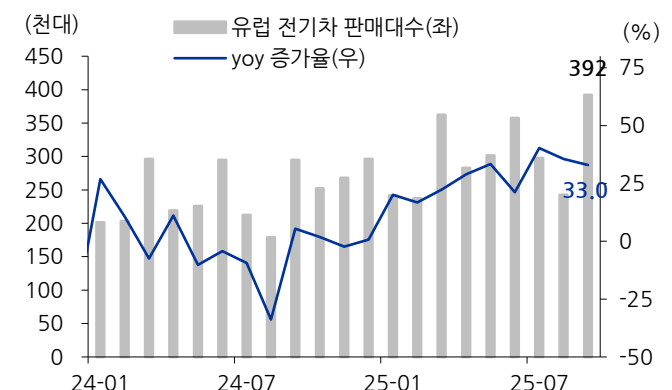
- 9월 판매 약 39.2만대 예상. 전년 동월비 33% 증가. 1~9월 누적 판매 272만대로 전년비 28% 성장 예상
- 영국 월간 판매 11.1만대로 전년 동월비 37% 증가하면 사상 최고치 기록. 의무판매비율 준수와 보조금 효과
- 빅 3 중 가장 부진했던 프랑스도 전년 동월비 6% 성장.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재개로 4분기 판매 추가 성장할 것
- 독일, 전년 동월비 48% 증가. 기업 구매 전기차 75% 가속 상각 허용 효과, 내년부터 개인 구매 보조금 도입 논의
- 스페인, 이탈리아도 각 114%, 69% 급증하며 유럽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아
- EU 집행부, 중국 기업들의 역내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해 새로운 기준 마련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역내의 인력과 물자를 일정 부분 사용하도록 제도 설계 중이라고 밝혀. 확정 시 역내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낮아질 것
- K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원인은 유동성 장세 하에서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로 판단. 업체들은 1)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조 회복 2) 미국 ESS 시장 고성장 지속과 진입 본격화 3) 중국업체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견제 기조 강화로 중장기 펀더멘탈은 회복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영국 월별 전기차 판매 추이



자료: KBA, 유진투자증권

유럽 월별 전기차 판매 추이



자료: ACEA, 유진투자증권

유럽 9월 전기차 판매도 견조	유럽의 9월 전기차 판매는 39.2 만대로 전년 동월비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판매 상위 5 개국가인 독일(+48%), 영국 (+37%), 스페인 (+114%), 이탈리아 (+69%), 프랑스(+6%)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유럽의 1~9월 누적판매는 271.6만대로 2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전역의 판매가 견조한 것은 CO2 배출 규제, 전기차 의무판매비율(영국) 등을 준수하기 위한 완성차업체들의 노력과 주요 국가 정부들의 지원 재개 때문이다.
영국에 이어 독일도 보조금 재도입 가능성 높아져	독일은 7 월부터 기업용 전기차의 75% 가속상각을 허용한데 이어 내년부터 개인용 구매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재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개인 전기차 구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구매 보조금이 재도입되었는데, 아직 38 개 차종만 해당된다. 업체들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 차종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프랑스도 10 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3.7 억유로의 전기차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이탈리아도 저소득층의 전기차 구매를 위해 6 억유로의 예산 집행을 9 월부터 시작했다.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유럽의 올해 전기차 판매는 375.5 만대로 전년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견제 확대 K 배터리에 긍정적 시각 유지	EU 정부의 중국산 순수전기차 수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업체들은 PHEV 위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 내에 직접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부는 중국업체들의 역내 투자에 대해 일정 기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기술이전, 역내 인력과 자원의 일정비율 이용 등으로 보도되었다. 조립 공장만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는 대신 대부분 중국에서 수출한 부품, 소재 등을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확정되면 중국업체들의 EU 내 생산시설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 최근 K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다. 유동성 장세 하에서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가 주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K 배터리 업체들은 1) 유럽 전기차 성장 재개 2) 미국 ESS 시장 고성장과 진입 본격화 3) 중국업체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견제 강화로 중장기 펀더멘탈의 회복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EU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Action Plan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터리 산업 강화 (Battery Booster 패키지)	배터리 제조 자원 확대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자원에 총 30억 유로 투입
	첫 번째 지원금: (2024년 12월 3일 공고), 10억 유로 배정 / 추가 지원금: '25~'27년 동안 18억 유로 추가 배정
	EU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가보조금 중복 수령 허용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배터리 원자재 채굴-정제 역량 확보 (유럽 내 및 해외 협력)
	배터리 소재(양극재, 음극재 등) 및 부품의 EU 내 생산 비율 50% 이상 확대
	배터리 셀팩 제조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세제 혜택 검토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경제 강화
	배터리 폐기물 관리를 강화, 비 OECD 국가로의 수출 금지
	EU 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확대 지원
	2025년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 방안 검토 및 투자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배터리 탄소 발자국 산정 기준 마련
	탄소 배출량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계산하는 방법 발표 예정
	Horizon Europe를 통한 차세대 배터리 R&D 지원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3억 5천만 유로 배정
	첨단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및 고체전해질 배터리 연구
	TechEU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배터리 스타트업 및 기업 지원
전기차 보급 촉진 & 충전 인프라 확대	배터리 셀 및 팩 제조 스타트업 투자 촉진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 유도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
	저소득층 및 교통 취약 계층 대상 전기차 리스 지원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2025년 기업 차량 전기차 전환을 위한 법안 초안 발표 → 2025년 말까지 법제화 추진
	유럽 내 전기트럭 도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검토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 5억 7천만 유로 투자
	TEN-T 물류 거점에 대형 전기트럭 충전소 설치 (2025년 3분기까지 초기 구축 목표)
	스마트 & 양방향 충전(V2G) 지원 정책 발표 (2026년)
	전기차 관련 규제 개정
	자동차 라벨링 규정 개정 (2026년) → 전기차 배터리 원료탄소 발자국 정보 포함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의무화 (2026년)
	AFR(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 검토 (2026년) → 전기차 충전소 가격 투명성 강화

자료: Europe Commission, 유진투자증권

도표 2.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P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808	1,871	2,048	2,453	3,007	3,897	5,258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570	1,629	1,772	2,116	2,602	3,400	4,648
YoY(%)	51.2	56.3	9.3	3.8	8.8	19.4	22.9	30.7	36.7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7	9.3	9.9	10.0	10.7	12.5	15.0	19.3	25.8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42	276	336	405	497	610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34	8,497	11,558	14,685	17,580	20,107	22,651	24,662	26,307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1,156	14,178	16,964	19,372	21,767	23,594	25,007
YoY(%)	83.7	36.6	37.8	27.1	19.7	14.2	12.4	8.4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6.0	44.4	51.6	57.2	62.4	65.7	67.6
일본 전기차 판매량	59	89	60	77	97	127	161	202	248
YoY(%)	39.4	50.5	(31.9)	27.0	27.1	30.8	26.4	25.2	23.2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3	1.9	1.3	1.6	1.9	2.5	3.1	3.8	4.6
기타 아시아 총합	501	628	683	862	1,036	1,215	1,445	1,732	2,103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10	2,945	3,755	4,523	5,582	6,330	7,389	8,763
YoY(%)	15.1	15.6	(2.1)	27.5	20.4	23.4	13.4	16.7	18.6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2	22.9	28.8	34.0	41.1	45.7	52.3	60.9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3	562	1,313	1,680	2,100	2,583	3,100	3,658	4,280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7,623	21,992	26,250	30,725	35,088	39,606	44,607
YoY(%)	55.0	35.7	28.7	24.8	19.4	17.0	14.2	12.9	12.6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9.6	23.8	27.5	31.6	35.4	39.1	43.2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9.30 기준)